천운스님은

호남지역 포교 '대부'



스님에게는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알고 가는 길'이란 포교지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나누어준 것도 처음이고 찬불가를 보급시킨 것, 어린이 중고등학생법회, 수련회를 만든 것도 호남에서는 선두주자에 속한다. 그만큼 스님은 남보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끄는 수행자다.

천운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향림사에는 3대가 함께 신도인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4대가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들 천운스님을 마치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존경한다. 그것은 스님과 신도라는 종교적 위계관계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몸으로 실천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존경심이다. 스님은 매일 시간을 정해 누구라도 차별않고 제접한다. 이 시간에 신도들은 가정사를 의논하기도 하고 신행상담을 하기도 한다. 스님은 신도 누구라도 법도에 어긋나게 잘못 산 것이 보이면 사정없이 야단친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라도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하는데서 불행이 오기 때문에 이성으로 가정사를 꾸려나가야 된다고 말하며 모든일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불교적인 가르침으로 생활할 것을 강조하며 신도들을 정법으로 이끌고 있다.

천운스님은 1930년 전북 고창 生으로 47년 월정사서 지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58년 선운사서 지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60년 선운사 도솔암 대교과를 수료하고 송광사, 용암사, 도갑사 등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구례 화엄사, 해남 대둔사 주지를 역임했고 지난 1월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불교의 불모지였던 전남 광주일원에서 포교에 주력한 공로로 지난 97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님을 39년 모셨는데 새벽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모시고 좌선, 염불, 다라니를 꼭 하십니다"고 회고했다. 사실 스님들조차 예불 거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요즘 풍토에서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철두철미 지키는데 스님은 조금의 양보도 없다.

스님은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참선하고 예불모시고 염불하는 시간을 갖는다. 6시15분에 아침공양, 그리고 행보를 1시간동안 하고 신도들과 만나 문답으로 상담한다. 점심공양후에는 광주불교대학, 사무실, 복지관, 정광학원, 향림원 등의 결재를 해준다. 그날 그날의 행사나 나가야 하는 경비 지출을 보고받는 것도 이 시간이다. 밤 8시부터는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스님은 시간 개념이 철저하다. 아무리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기에 스님은 많은 일을 척척 해나간다.

스님이 16살에 내장사로 갔을 때 그곳에는 박한영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스님은 1년여 정도 노스님을 시봉하고 이후 월정사에서 지암스님을 스승으로 모신다. 스님은 항상 "두 스님과의 인연은 내 수행의 발판"이라고 말한다. 스님이 수행자로서 일관되게 해오는 수행자세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노스님들을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된 것이다. "우리 스님(지암스님)은 특히 남의 평을 하고 남의 이야기나 일삼는 시비 등을 엄하게 경계하셨고 남의 일에 시시콜콜 관여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포교하는 사람은 감투쓰면 안된다, 무소유로 살아라, 여자관계 철두철미하라는 세가지를 간곡히

예불 · 좌선 · 염불
신도들과의 문답
빼놓수 없는 일과

당부하셨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최대의 도둑이고 역적이라고 하시면서 삿된 일, 범속한 일상사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경책하셨지요."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 것, 포교와 복지, 교육, 인재양성에 열심인 것 등 모든 것은 은사인 지암스님에게서 받은 영향이지만 진실한 수행자가 되기를 바라는 은사의 뜻을 올곧게 계승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시는 천운스님의 모습에서 후학들은 또 여법한 수행의 귀감을 삼게 되는 것이다.

정화이후 전국 수많은 절에서 세칭 '대처승 몰아내기'가 벌어져 차마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도 비일비재 했지만 스님은 대처승이라고 해서 강제로 쫓아내 본 적이 없다. 스님은 "내 권속이 거의가 대처승이고 내가 대처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몰아내는 데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무조건 쫓아버리니 입에 풀칠도 못하게 힘들게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가운데 분에 못 이겨 개종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내 눈으로 그런 것을 보니까 무자비하게 쫓을 수가 없었어요." 생계마련을 해준 다음에 나가게 했다. 즉 논을 얼마 줄테니 그것을 밑천으로 벌어 자시시오, 또는 주지는 두 만기만 하게되어 있으니 세 만기째 하실 생각 말고, 할려면 포교당을 따로 지으시오 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살려서 보내야 한다는, 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확연히 돋보이는 대목이다.

스님이 40년 가까이 갈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아 온 것도 사람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고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인권과 교육에 대한 투철한 믿음하에서 행해지는 일이다. 지금도 향림사에는 40여명의 아이들이 부처님품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고 있다. 39년동안 향림사를 거쳐간 아이들은 150여명. 이중의 10% 정도는 출가수행자가 되었다.

개중에는 가출했다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말썽장이 아이들도 있었다. "큰스님은 아이들이 몇 번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주위에서 받지말자고 해도 따뜻하게 받아들이셨지요. 지난 IMF때는 아이들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 '아이들 키우는 게 부처 키우는 것'이라며 스님은 다 받아주셨지요" 범각스님의 말이다. 천운스님은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 장차 큰 인물이 되도록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자라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식을 위한 나의 의무"라고 주위에 말씀하시곤 했다. 이렇게 밝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 교사 의사 사업가 등 사회 곳곳에서 훌륭히 역할을 하는 불자로 생활하고 있다.

천운스님은 늘 '지혜로 살기'를 강조한다. "누구나 전생의 업이 있으니까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바로 전생의 업을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업(除業)이라고 해요. 제업을 하려면 일념으로 가야합니다. 일념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일념도 없어지는 무념(無念)의 세계가 옵니다. 무념의 경계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일념으로 닦아야만 제업이 이뤄져 무념경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면 성질부리고 과욕부리고 남을 음해모략하고 노름하고 그런 몹쓸 짓을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늘 신도들에게 강조합니다. 돈놀이, 노름, 음란한 생활, 습관성 담배 술 아편 이런 것 하지 말라고요. 이런 생활을 하다보면 마음이 허랑해져서 제업생활이 안돼요. 무념까지 가도록 지속시키는 일심이 중요합니다. 스님들은 물론 재가불자들도 그 경계까지 가야 해요."

온갖 타성에서 벗어나 주인의식으로 제 마음을 제가 추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하심으로 정진하고 보시정신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여 참다운 불자로 살아가자는 것이 스님의 간곡한 당부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승원스님

충남 예산읍내를 거쳐 대술면 쪽으로 한참을 가다 보면 천방산이 나온다. 그 천방산 산줄기를 따라 큰 저수지를 한참 돌아가보면 천방사라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다. 그 암자에 승원 스님이 수행하고 있다. 승원 스님은 나이로는 나보다 한참 연배이지만 강원생활을 함께 한 도반이다. 강원을 졸업하거나 학교를 졸업하면 스님들도 동창모임을 갖는다. 스님은 한번 그 모임에 왔다가 나이 어린 스님이 나이 많은 스님에게 경우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이곳은 내가 올 자리가 아니라고 훨훨 떨쳐 버리고는 그후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여러 도반들이 함께 하자고 여러번 권유를 했지만 스님은 '홀로 수행'에 힘을 다 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지라 어쩌다 스님을 찾아간다. 그리곤 천방산 기슭에서 침묵을 배우고 검소를 배우고 참나 주시함을 배우고 돌아 온다.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모두 손수 하고 있다.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스님에게는 가능한 시은을 덜 지어 갈려고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곳에는 현대의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스님의 손은 거칠다 못해 손톱이 다 부러질 정도이다.

천방산 기슭서 무소유 삶
고아들 돌보며 수행열심

내가 대중처소로 가기를 몇차례 권유했지만 시은이 무섭다고 했다. 받아 먹기만 하고 제대로 정진을 못하면 마음이 더 무겁고 몸이 더 무거우니 내 몸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현대생활이 주는 편안함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다.

스님은 그곳 천방사에서 은사스님을 떠나 보내야 했다. 또 한분의 노스님도 모시고 살았는데 그분의 장례도 손수 치러야 했다. 그리고 속가로는 언니고 절집으로는 사형의 인연을 맺은 스님마저 손수 장례를 치르는 아픔을 견디면서, 어쩌면 허망함과 무상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는지도 모른다. 또 부모 없는 고아들을 몇 명 데려다가 키웠는데 그 아이들마저 자기들 살 길 찾아 떠나고자 했을 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부모처럼 방을 얻어 주고, 직장을 구해 주는 등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채비를 해 주었다. 좁은 내 소견으로 "그렇게까지 한다고 저 아이들이 고마움을 알까?" 했을 때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아이들의 집은 바로 이 천방사야. 내가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어. 그래도 부처님 밥 먹고 자랐는데 결혼을 하겠다면 결혼도 시켜주어야 해. 모든 것이 억지로는 안되고 그 업력에 의해 살아가야 하는데 머리 깎고 먹물 옷 입을 인연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나. 어디 가든 부처님 뜻으로 살면서 마음 하나 잘 쓰면 되겠지" 했다.



아이들에게 부처님이 뵙고 싶을 때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찾아 오라, 천방사는 다 너희들의 집이기에 기대고 쉴 수 있는곳이라고 단단히 일러 주곤 했다.

사실 절집은 '숨은 고아원'이다. 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처럼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면서 아이들을 키운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모두 머리를 깎고 출가사문의 길을 가준다면 대성공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 둘 스님 곁을 떠날 때 그 떠나는 아이들을 서운해 하고, 많이도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떠난 그 아이들은 다시 절집으로 오지도, 가지도 않는 모습을 보아온 터라, 미련없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승원 스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보시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알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문제가 급박하게 닥쳤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이익 쪽으로만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간사한 마음이 아닌가, 가끔은 주위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라고 내게 권유하지만 나는 거부한다. 왜냐하면 나는 승원 스님처럼 진정한 보시행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승원 스님이 정진하는 천방사는 어쩌다 찾아오는 반연들에게 기도 법을 알려 주는 정도고 법회를 하거나 불사를 거대하게 하지 않는다. 청빈 그대로이다. 어쩌다 재라도 들어오면 스님은 참으로 부담스러워 한다. 그 조그마한 토굴은 찾아가고 찾아 오는 이가 드문 골짜기에 있지만 스님은 그곳이 수행자에게 극락이고 열반의 언덕이라고 누누히 말한다. 생활권이 편안한 대중이나 도반들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지 않는 승원스님, 나는 때로 번잡하고 분주한 내 생활에 지쳐 기운을 잃을 때 승원 스님을 찾아가 무소유의 가치를 배우고 '더 많이 비우기 작업'을 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수행이 되는 것처럼 편하게 살아 가는 나의 초라함이 스님 앞에서는 더 크게 느껴진다.

스님은 물질에 연연해 하지 않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꾸며, 청빈을 즐기면서 사는 스님이기 때문이다.

▩ 세원사 주지

혜거스님의
경전강좌 안내

해거스님께서는 다년간 불교라디오방송에서 자비의 전화상담과 경전강의를 하셨습니다. 본 선원에서는 신사년을 맞아 새로운 경전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유식 삼십송
강의 일시 : 3월 2일 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교 교리
강의 일시 : 3월 7일 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3개월간 회비 6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금 강 선 원

TEL : 02) 445-8484 FAX : 02) 445-8043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교 수 초 빙

세계수준의 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하기 위하여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에서 다음과 같이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 초빙분야

학 과	전 공 분 야	초빙인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교학(원시불교)	1명	계약제 임용
	불교교학(유 식)	1명	
	심리학	1명	
	사회복지학	1명	

◉ 지원자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다. 불교를 이해하고 신심이 돈독한 분

◉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 제출
다.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빙자료, 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각 1부
라. 연구실적물('97. 3. 1. 이후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부
마. 석 · 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제출기한 2001. 3. 5 ~ 2001. 3. 7. 17:00까지

◉ 제 출 처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 비즈니스센터 705호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 설립추진위원회

◉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2001. 3. 7.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는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자격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불교 신자인 분은 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아. 본 대학원대학교 개교 지역은 서울특별시내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 02-3486-830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1. 2. 21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

2001년 포교사대학 입학안내

21세기는 고도의 전문화된 포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견고하고 불퇴전의 용맹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길을 제시 할 수 있는 통찰력 갖춘 불교지도자를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1981년 설립된 본 대학은 현재 1000여명의 포교사가 활동 중이며 초(법)종단 대덕 스님, 교수, 법사님을 초청하여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포교사 양성을 위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시간
주 2일 2강좌 각 90분 강의 출석, 야간수업
직장인을 위한 야간(토요반)운영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 한국불교사, 불교문화사, 법화사상, 원효사상, 불교의식
2학기 - 근본불교, 아비달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사회복지론, 선문염송, 생활불교
2학년 1학기 - 유식론, 중국불교사, 법화사상, 정토불교사상, 밀교특강,
2학기 - 불교경전 개설, 인도불교사, 화엄사상, 선종사상, 원각경강독, 불교상담론

◎ 강사진
무진장스님, 법산스님, 운곡스님, 오국근교수, 오형근교수, 이봉춘교수, 박경준교수, 이혜속교수, 김사업교수, 한정섭박사, 서윤길교수, 리영자교수, 이정희교수, 심만춘스님, 문보경스님, 노병산스님, 장각성스님, 관태일법사, 허은법사, 김일룡법사, 구해스님, 최홍주법사, 최중찬교수 등

◎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 - 출강, 통신과정)
◎ 모집과목 및 인원 포교사학과 출강 35명, 통신 100명
◎ 지원자격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 및 불교교리 숙지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방법 서류전형, 선착순 등록금(1학기) 30만원
◎ 특전사항 - 포교사 과정이수 후 수료중, 포교사 자격증, 포교사증 수여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 가능
- 스님, 교임, 종단 추천 스님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720-1001 팩스 02)722-1585

한국불교포교사협회 부설 포교사 대학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 2001학년도 봄학기 원생모집 】

모집과정

과 정 명	분 야	세 부 과 정 명	교육기간	주/야 구분	비 고
교양교육과정	불 교	불교란 무엇인가	1학기	주간	
		참선수행	1학기	주간	
	종 수 역 학	생활풍수	2학기	주간/야간	
		생활역학	3학기	주간/야간	
	문 화 예 술	서예	2학기	주간/야간	
		문인화	2학기	주간	
		서예	2학기	주간	
		보석디자인	2학기	주간	
		캘리그라피	2학기	주간/야간	
		전통생활지수	2학기	주간	
		한지그림강의	2학기	주간	
		전통의상실기	2학기	주간	
		건강전통무용	2학기	주간	
	외국어	영어회화고실	1학기	야간	
		중국어회화고실	1학기	야간	
		일본어회화고실	1학기	야간	
	건 강	신기공(초급/중급/고급 시범/연구)	4학기	주간/야간	
		수지침	2학기	주간/야간	
전문교육과정	불 교	불교전문교육	5학기	주간	
		천태학	2학기	주간	
		불교영어	2학기	야간	
		한문해석법	2학기	주간	
		기초한문	2학기	주간	
		불교한문강독	2학기	주간	
방통고교과정	학점은	동국학점은행대학	2학기	주간	
특별교육과정	예술지망	포항예술지교	6학기	주간	
학점은행제교육과정	고 양	고등학교에서 인정하는 16개 고과과목 운영	각 1학기	주간/야간	학점인정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중 운영교과에 대한 문의는 본 원 교학과로 문의요망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없음(단, 학점은행제 및 일부 교육과정은 제외)

원서교부기간 및 접수
■ 기간 2001년 2월 1일(목) ~ 2월 28일(수)
■ 접수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기념관 1층)
※ 단, 학점은행제 과정 접수기간은 별도로 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및 사진(여권용) 2매
■ 주민등록등본(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및 불교전문교육과정 지원자에 한함)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등 일부교육 과정은 고졸이상의 학력증명서 추가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02) 2260-3728~9 / FAX :02) 2260-3730
홈페이지 : http://dgucc.dongguk.edu/~soedu